

프랑스어에서 사행의 유형 연구*

원유상

(원광대학교)

Won, Yoosang. 2004. A Study on the Typology of the Process in Frenc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4), 143-165. The aim of our study consists in the pursuit of the major senses which 'process' can have and the consequence of temporal operator's function as aspectual determiners. Distinct from the tense, 'aspect' is a grammatical category focusing on process. Process can be denoted inconsistently by extra-linguistic actions, verbs, and temporal operators. We have surveyed how a typology of the process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 actions by Brunot and Vendler's quadripartite classification of the verbs. The features most significant for their classification are <±dynamism>, <±closed>, and <±momentary>. The roles played by temporal operators have to be examined in detail, because the ultimate sense at the phrase level results from their combination with the verbs. We have noted that the classification of the verbs is useful for the selection, as well as their interpretation, between the auxiliaries 'être' and 'avoir' for the Perfect construction in French. While the distinction of transitional / non-transitional situations referred to by verbs is possible through such a classification, this distinction is meaningful concerning the inference of the phrases with all kinds of aspects including the Perfect aspect. We have also showed that the semantic values of the iterative process are 'habit', 'attribution of property' and 'argumentation', and that some of the functions of the durative process are to describe past events or figures, and to act as a theme or topic in relation to predication of these objects.

주제어(Key words) : aspect, process, action, temporal operator, iterative, durative

1. 들어가는 말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

* 이 논문은 2003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는 시간 안에서 발생하고 전개되는 사건은 인간의 인지에 의해 연대기성(chronologie), 동시성(simultanéité) 그리고 지속(durée)을 통해 감지된다(Kovalevsky: Retrieved June, 15, 2003, from <http://www.asmp.fr>). 이렇게 감지된 사건은 언어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술어의 시간성, 시제연산자 그리고 발화상황에 의해 한정된다. 사행(procès)은 언어로 재구성된 사건의 시간적인 양상인데 시간이 언어화하는 두 가지 방식인 시제(temps)와 시상(aspect)중 시상과 연관된다. 발화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배열하는 언어장치가 시제라면 시상은 사건의 전개형태에 관한 문법범주이다. 따라서 사행은 바로 시상연구의 기본단위이자 직접대상이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기존연구자들이 사행을 유형별로 분류할 때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가 언어연구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동사와 사행

인간의 인지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건도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인지행위는 인간의 언어행위의 결과물인 발화체(énoncé)가 갖는 의미효과(effet de sens) 혹은 가치에서 확인된다. 발화체의 시간적 측면을 고찰하는 시상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인지행위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시상을 연구하는 이들이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은 언어화한 사건의 사행과 동사의 시간특성이 어느 정도 연관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장구성성분인 주어, 술어, 목적어, 부사어 혹은 상황보어 중에서 동사가 시간개념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동사는 활용변화(conjugaison)에서 법(mode), 태(voix), 인칭(personne)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소인 시제(temps)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동사는 사행의 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한편 사행을 유형별로 분류할 때 기본적인 구분은 상태(état)와 행위(action)의 구별일 것이다. 전자는 시간이 배제된 듯한 느낌을 주고 후자는 시간속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시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 두 사행의 구분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행을 하위분류하고 있다.

- (1) a. Les lettres *sont distribuées* à huit heures du matin (편지는 오전 8시에 배달되었다)
- b. Il est huit heures, les lettres *sont distribuées* (지금 8시 반인데

편지가 배달되고 있다)

(1)a는 상태를 지시하고 (1)b는 행위를 지시한다. 동일한 동사가 서로 다른 사행을 지시한다.

- (2) a. Il *fortifie* sa position (그는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b. Sa position *est* singulièrement *fortifiée* (기이하게도 그의 입장은 강화되었다)

(2a)는 행위의 사행으로, (2b)는 상태의 사행으로 이해된다. 발화상황과 통사구조의 차이가 지시되는 사행을 서로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2.1 벤들러의 동사분류

벤들러Vendler는 시간도식(time schema)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동사를 분류하였는데 (Vendler: 1967). 그의 분류는 다음의 4가지이다.

- A. 상태동사(verb of state)
- B. 행위동사(verb of activity)
- C. 종결지향동사(verb of accomplishment)
- D. 종결동사(verb of achievement)

벤들러는 동사의 통사적인 구조와 의미론적인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동사를 분류하였다 (Vendler, 1967: 99-102). 먼저 상태동사와 행위동사는 진행형(*la forme progressive*)와의 결합가능성 여부에 의해 서로 구분된다. know, love, recognize같은 동사는 진행형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동사이고, run, write 등은 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행위동사들이다. 행위동사는 'For how long S?'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발화체에 쓰일 수 있는 반면 종결지향동사는 'How long did it take to VP'와 같은 질문의 응답의 발화체에 사용될 수 있다. 종결동사는 "At what time S?"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 (3) For how long did he push the cart?
- (4) How long did it take to draw a circle?

(5) At what time did you reach the top? At noon sharp.

벤들러의 동사분류는 회펠만과 로레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Hoepelman & Rohrer, 1978: 120-121). 예를 들어 상태동사는 다음과 같은 구문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6) *Jeanne est en train d'avoir faim (잔느는 배고프고 있다 : 진행형으로 사용되지 않음)
- (7) *Jeanne a forcé Maire à avoir faim (잔느는 마리를 강제로 배고프게 한다 : 부정법구문으로 사용되지 않음)
- (8) *Ayez faim! (배고파라! : 명령법으로 사용되지 않음)
- (9) *il avait faim volontiers (그는 기꺼이 배가 고했다 : 의지의 부사와 더불어 사용되지 않음)
- (10) *Jean vient d'être professeur (그는 방금 교수였었다 : 근접과거와 더불어 사용되지 않음)
- (11) *La fenêtre donna sur la cour (창문이 마당을 향하기 시작했다 : 단순과거와 더불어 사용되지 않음)
- (12) *Marie est déjà bête (마리는 이미 바보이다 : 특수한 부사와 더불어 사용되지 않음)

회펠만과 로레가 제시하는 동사분류의 기준과 벤들러 자신이 세웠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방식의 동사분류는 결국 [\pm dynamique](역동성), [\pm borné](경계성), [\pm momentané](순간성) 이라는 3가지의 기본적 분류소(classificateur élémentaire)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sselin & François, 1991: 37-38). 시상에 관한 기준은 [\pm borné]과 [\pm momentané]뿐이다. [\pm dynamique]라는 기준은 주어의 의지와 관련되는 행위자 모델(modèle actancier) 기준으로서 특히 회펠만과 로레가 제시하는 기준의 중요한 근거이다. 위의 예문 (7), (8), (9)가 역동성의 개입여부를 보여준다.

동사구가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시간특성이 달라진다. 벤들러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running'은 행위동사인 데 반해 'running a mile'은 종결지향동사이다 (Vendler, 1967: 102). 넘어서야 할 경계(borne) 혹은 의미론적인 문턱(seuil sémantique)이 설정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목적어의 특성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사행을 지시하기도 한다.

- (13) Jean a joué du piano (장은 피아노를 연주했다)
 (14) Jean a joué une sonate (장은 소나타 한 곡을 연주했다)

예문 (13)은 행위의 사행을 지시하는데 (14)는 종결지향의 사행을 지시한다. '장-피아노-연주'와의 관계에서는 달라질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jouer'가 행위동사로 사용된다. 하지만 '소나타 한 곡'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시작점도 있고 종결점이 있는, 그래서 사행공간(intervalle)의 좌-우가 경계로 둘러쳐진 사행을 지시하는 것이다.

2.2 브뤼노의 행위의 유형화

시간개념은 생명체, 사물, 성격부여 그리고 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¹⁾고 생각했던 브뤼노는 행위를 유형화하였다. 그는 발화체의 시간 양태에 의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한다 (Brunot, 1953: 438).

A. actions instantanées (순간행위, 點動作)

- (15) Il *meurt* (그가 죽는다),
 (16) l'étincelle *jaillit* (섬광이 솟구친다)

B. actions limitées (제한행위)

- (17) Il *fait* sa promenade habituelle (그가 습관적인 산책을 한다),
 (18) La cuisinière *épluche* ses pommes de terre (요리사가 감자껍질을 벗긴다)

C. actions illimitées (비제한행위)

- (19) Cet écrivain *a* un style très agréable (이 작가는 매우 기분좋은 문체를 지녔다),
 (20) Cette personne *est* fort jolie (이 사람은 대단히 예쁘다)

D. actions partiellement limitées(부분적 제한행위)

1) Brunot, F.(1953) La pensée et la langue, Masson et Cie, p.437. 브뤼노는 시간개념이 (a)생명체(être), (b)사물(chose) 그리고 (c)성격부여(caractérisation)에 연관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 *L'enfant d'aujourd'hui est l'homme de demain*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어른이다) (b) *les réformes à venir* (다가오는 개혁들) (c) *La Bataille, imprenable il y a deux siècles, ne résisterait pas aujourd'hui à une demi-heure de bombardement* (2세기전에는 함락될 수 없었던 바스티유는 오늘 날 30분의 폭격에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 (21) La Révolution de 1789, malgré des arrêts et des reculs, *continue* depuis un siècle et demi (1789년의 혁명은 멈추기도 하고 후퇴도 했지만 한 세기 반 이래로 계속되고 있었다)
- (22) L'humanité *a cherché* ses principes essentiels jusqu'à la Révolution de 89 (인류는 1789년의 혁명 때까지 인류의 근본원리를 추구하였다)

브뤼노의 유형은 순간(instant)과 지속(durée) 그리고 경계(borne)라는 분류소로 구성된다. 사실 시간의 흐름이란 많은 순간(instant, moment)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선(ligne)으로 인식된다. 다시 선(ligne)은 경계(borne)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시 하위 분류될 수 있을 것인데 (B)의 제한행위와 (C)의 비제한행위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²⁾. 그런데 동사는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사행을 지시할 수 있다. 사행 유형의 전환의 이유를 브뤼노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한다 (Brunot, 1953: 438).

A. 동사가 다의어일 경우

- (23) 點 行爲 : *je tourne la page* (나는 책장을 넘긴다)
- (24) 線 行爲 : *la terre tourne* (지구가 돈다)

B. 문맥에 의해서

- (25) 點 行爲 : *elle s'est éteinte brusquement* (그녀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 (26) 線 行爲 : *elle s'est éteinte petit à petit* (그녀가 서서히 숨을 거두어 갔다)
- (27) 제한 행위 : *Madame s'habille* (마님께서 옷을 입고 계십니다)
- (28) 비제한 행위 : *Madame s'habille bien* (마님께서 옷을 세련되게 입으셨습니다)
- (29) 點 行爲가 線 行爲로 변환된 경우 : *J'aperçus longtemps sa main qui agitait un mouchoir blanc* (흰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손을 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2) 그런데 엄밀하게 분석하면, (B)의 제한적 행위의 경우, 제한은 동사자체의 시간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의 특정성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다. 즉, 'sa promenade habituelle'이나 'ses pommes de terre'의 한정사가 특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일 목적어가 비특정적인 한정사인 'des'에 의해 묶인다면 (B)의 상황은 비제한적인 행위를 지시하게 될 것이다.

브뤼노는 동사 자체의 사행을 넘어서서 문장이 지시하는 행위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행을 한정하는 요소들에 주목을 하였다. 동사가 다의어일 경우, [주어+V+목적어]의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문맥이란 문장이 사용된 발화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발화상황에서 사행이 제대로 확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브뤼노는 그의 저술의 다른 곳에서는 동사가 내재적으로 갖는 사행의 유형을 이용하여 프랑스어의 복합과거에 사용되는 조동사의 선택조건을 설명한다. 완료의 시상적 가치(valeur aspectuelle)를 지니거나 과거라는 시제의 가치(valeur temporelle)를 갖는 프랑스어의 복합과거(Passé Composé)구문에서 조동사 'être'와 사용되는 동사는 제한적이거나 점 행위를 지시하는 자동사라고 규정하고 이 경우만이 시상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Brunot, 1953: 458-459).

(30) Il est sorti (그가 나갔다 : 제한 행위)

(31) Il a marché (그가 걸었다 : 비제한 행위)

'걸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자동사이긴 하나 행위의 유형은 비제한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함의(implication)를 가지기 어렵고 단지 과거의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의 가치만을 갖는다. 반면 '나가는' 행위는 제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상황의 변화를 함의한다. 시제적 가치와 더불어 시상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적 사행을 지시하는 동사는 복합과거 구문에서 시제의 가치와 시상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이 이 사실을 보여준다.

(32) Il est mort l'an dernier (그는 작년에 숨졌다 : 시제의 가치)

(33) Tu ne le trouve plus, il est mort (넌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죽었어 : 시상적 가치)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브뤼노는 동사가 표상하는 행위를 [순간]과 [지속] 그리고 [경계]의 분류소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유형이 조동사의 선택, 시상가치의 존재여부 및 문장의 해석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사행은 문장층위에서 변형될 수도 있다는 근거를 밝혔다.

2.3 전이와 비전이 사행

동사가 제한적 사행을 지시하는지 혹은 비제한적 사행을 지시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프랑스어의 복합과거 구문에서 살펴 보았다. 코 베틀Co Vet는 사행구간(intrevalle), 전제사행구간(intrevalle présumé), 함의사행구간(intrevalle impliqué) 그리고 참조점(point référentiel)이라는 분류소들을 이용하여 동사가 지시하는 바를 전이적 상황(situation transitionnelle)인 것과 비전이적 상황(situation non transitionnelle)으로 구분한다.³⁾ 전이적 상황이란 동사가 지시하는 사건이 종결되면 다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며 비전이적 상황은 종료가 아무런 결과를 생성해 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4) Le papier jaunissait (종이가 노랗게 변색되고 있었다)

(35) Le papier était jaune (종이가 노란색이었다)

예문 (34)가 지시하는 상황에서, 종이는 전제사행구간(intrevalle présumé)에서는 노란색이지 않았는데 함의사행구간(intrevalle impliqué)에서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다. 반면 (35)는 이러한 변화를 전제하지도 않고 또 함의하지도 않는다. 앞서 살펴본 벤들러의 동사분류에서 종결지향이나 종결동사는 전이상황을 지시한다. 그리고 브뤼노가 분류한 제한행위나 부분적인 제한행위 역시 전이상황을 지시한다. 베틀에 의하면 이외에 전이상황을 지시하는 사행은 다음과 같다 (Vet, 1980: 68-69).

전이적 상황

a. 과정(Procès) Le papier jaunissait (종이가 노랗게 변색되고 있었다)

Jean arrivait au sommet (장이 정상에 도달하고 있었다)

b. 행위과정(Action-procès) Jean jaunissait le papier (장이 종이를 노랗게 변색시키고 있었다)

Jean éteignait la bougie (장이 촛불을 끄고 있었다)

이와 달리 비전이적 상황은 상태(Etat), 위치(Position), 행위(Activité),

3) Vet (1980: 62) 사행구간(intrevalle)은 사건이 위치하는 시간축상의 거리를 말하며 참조점(point référentiel)은 사건을 인식하는 화자의 관점과 그 위치를 말한다. 전제와 함의는 명제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역동(Dynamisme) 등의 사행에 의해 지시된다. 전이상황을 지시하는 동사와 비전이 상황을 지시하는 동사가 갖는 의미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36) Chantal est sortie (en ce moment) (상탸은 (지금) 나가 있다)

(37) *L'enfant a maintenant pleuré (*어린아이가 지금 울었다)

전이적 상황을 지시하는 동사는 전제 및 함의의 사행구간을 갖는 반면 비전이적 상황을 지시하는 동사는 사건이 이루어진 사행구간만을 갖는다. (36)에서 동사는 3가지 종류의 사행구간을 갖는다. 완료의 상황에서 화자의 인식은 함의의 사행구간에 놓여있다. 따라서 함의의 사행구간은 '상탸이 나가고 없는 상태'를 지시하며 화자의 인식은 바로 이 구간과 일치한다. 앞서 브뤼노가 말한 복합과거의 시상적 가치를 이 예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37)의 '올다'라는 동사는 행위를 지시할 뿐 함의구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사 'maintenant'과 일치하는 화자의 인식이 놓여질 시간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37)은 비문이 되는 것이다.

동사의 사행이 전이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발화체의 의미에 관한 추론이 달라진다.

(38) Il nageait → Il a nagé (그는 수영하고 있었다→그는 수영을 했다)

(39) Il se noyait ⇨ Il s'est noyé (그가 물에 빠지고 있었다⇨그가 물에 빠졌다)

(39)의 'se noyer, 물에 빠져 죽다'처럼 전이적 상황을 지시하는 동사는 완료시제로 사용될 때만 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38)의 'nager, 수영하다'처럼 비전이적 상황을 지시하는 동사는 사행의 어느 점에서 동작이 정지해도 그 행위는 실현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시간특성에 주목하여 기욤Guillaume은 프랑스어 복합시제에서의 조동사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Gustave G: 131-132). '걷다(marcher)'와 '나가다(sortir)'는 각기 비전이 상황과 전이상황을 지시하는 동사들이다. 'marcher'는 행위의 지속기간이 길건 짧건 상관없이 행위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정지를 하여도 그 행위는 실현된 것이고 주체는 사행의 밖에 놓이게 된다. 행위들은 모두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간주된다. 그런데 'sortir'는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다. 진행의 어느 순간에 동작이 멈

추면 '나갔다'라고 말할 수 없고 주체는 사행의 내부에 위치한다. 종결점(terme)에 이르러서만 '나갔다'라는 결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갔다고 해서 다시 나갈 수는 없다. 즉 주체가 위치한 상황은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반복이 가능한 행위의 사행과 반복이 가능치 않는 행위의 사행중에서 전자의 경우 avoir가, 후자의 경우 être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욤의 관점인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본 바와 같이 동사 혹은 행위를 사행의 관점에서 유형화한 결과는 시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추론, 조동사의 선택, 복합시제의 의미 파악, 언어행위 등에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3. 시제연산자와 사행의 한정

프랑스어에서 시제는 고유한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 조동사를 사용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영어와는 달리 미래시제의 경우에도 동사 자체가 활용변화를 한다. 그런데 시제 연산자는 사건을 화자의 발화순간(moment de parole)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사건을 위치시키는 기능 외에 사행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과거에 발생한 행위를 표시하는 시제로 복합과거, 반과거, 단순과거가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시제연산자에 의한 사행의 한정은 깊은 고찰을 요구한다.

3.1. 시제연산자에 의한 사행의 한정

시제의 의미작용과 시간부사의 의미 그리고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상태나 과정의 시간구조를 고려해야 발화체의 시간구조를 규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회펠만과 로레는 동사와 시제연산자의 결합양상에 주목한다(Hoepelman & Rohrer, 1978: 119). 벤들러가 시도한 동사의 분류를 수용하면서 그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들은 4가지 동사들이 프랑스어의 과거 시제로 쓰이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부사 'déjà'와 'encore'와의 양립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회펠만과 로레가 과거시제 연산자가 어떤 유형의 사행을 지시한다고 보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단순과거(Passé Simple) 연산자는 기동상(inchoatif)을 지시하는데 이 기동상은 사건이 전개되는 순간을 지시하는 사행이다. 회펠만과 로레는 이 특성을 다음 발화체들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설명한다. (여

기에서 ‘encore’와 ‘déjà’는 지속(duratif)의 의미로만 해석한다)

- (40) *A quatre heures le prisonnier parla encore (*4시에 수감자가 아직 말하기 시작했다)
 (41) *Quand Pierre rentra, Marie dormit déjà (*뻘에르가 돌아왔을 때 마리는 이미 잠자기 시작했다)

지속(duratif)을 의미하는 부사와 기동상은 양립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참조점이랄 수 있는 ‘4시’와 ‘뻘에르가 돌아왔을 때’부터 사행이 시작되는데, 이 상황을 지속의 부사가 수식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어색하다. 만일 위의 예문들에서 주절이 반과거(Imparfait)연산자와 결합하여 쓰였다면 정문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시제 반과거(Imparfait)의 미완료(imparfait) 사행은 사행의 시점이나 종결점이 아닌 진행단계를 표상한다. 미완료의 사행은 이미 실현된 사행구간과 장차 실현되어야 할 사행구간을 동시에 포함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행의 종결점을 나타내는 부사와 반과거는 결합하기 어렵다.

- (42) *Jean travaillait jusqu'à deux heures (*장은 2시까지 일하고 있었다)

이 발화체가 ‘장이 두 시까지 일하곤 했다’라는 반복의 의미로, 즉 과거의 반복행위를 의미한다면 수용 가능하겠지만 과거의 일회적 사건을 나타내는 해석으로는 비문이 된다. 단순과거와 반과거 연산자가 지시하는 사행의 특성은 다음 예문들에 대한 유추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 (43) Il vint déjeuner chez Paul ⇒ “Il a déjeuné chez Paul”(그는 뵈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44) Il venait déjeuner chez Paul ⇒ “Il n'a peut-être pas déjeuné chez Paul”(그는 뵈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아마도 안 했다)

단순과거에 의해 지시되는 사행은 모두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완결된 역사적 사실의 서술에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반과거로 서술된 사실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유보케 한다.

복합과거(Passé Composé)는 완료(accompli)의 시상을 지시하는 시제 연

산자이다. 완료시상은 과거의 시점에서 동작이 종결되고 이후의 상태가 현재에까지 지속하는 사행을 말한다. 지속하는 상태는 앞서 베틀가 지적한 함의의 사행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속의 의미의 'encore'와 결합하기는 의미론적으로 어렵다.

(45) *Jean a encore mangé (*그는 여전히 먹었다)

이 발화체는 'encore'가 반복의 의미를 지닐 때에만 성립한다. 완료의 사행을 지시하는 복합과거와 지속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 'encore'가 결합이 되지 않는 이유를 회펠만과 로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복합과거는 누군가가 어느 행위를 했다는 특성 혹은 속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속성은 결코 상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누군가가 무엇을 했다면 그가 그것을 했다는 것은 영원히 참(vrai)인 것이다'. 따라서 결과의 상태와 행위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는 양립하기 어렵다. 완료의 사행과 지속의 결합이 어색하다는 것을 아래의 예문이 보여준다.

(46) *il est encore mort (*그는 아직도 죽었다)

첫째로, '아직도 죽었다'라고 'encore'를 지속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문장은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⁴⁾ 둘째로, 사람이 두 번 죽을 수 있다면 두 번째 죽음에 대하여 '그는 다시 한번 죽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두 개의 해석 모두 현실에 맞지 않는 언술이다.

이렇게 시간논리의 관점에서 발화체의 수용가능성이 결정되는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실제 세계의 상황을 참조해야만 발화체의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도 있다.

(47) Beethoven a écrit neuf symphonies.(베틀벤은 9개의 심포니를 작곡했다)

이 발화체는 베틀벤이 작곡한 교향곡의 숫자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세

4) 동화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거울로부터 다음의 대답을 듣고 노발대발한다. "Tu es encore la plus belle au monde"(왕비님이 아직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부사 'encore'는 지속을 의미하고 앞으로 이 사행이 종결될 것임을 암시한다.

계에 관한 올바른 진술이다. 그런데 다음의 발화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48) * Beethoven a déjà écrit neuf symphonies. (베토벤은 이미 9개의 심포니를 작곡했다)

베토벤이 세상을 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위의 진술은 아직 베토벤이 9개 외의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암시한다. 이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은 현실에 적절한 진술이 아니라는 화용론적 판단에 근거한다.

프랑스어의 과거시제 연산자의 사행을 각기 기동상과 미완료상 그리고 완료상으로 규정하는 회펠만과 로레의 입장은 콤리Comrie의 분석과 동일하다. 콤리는 프랑스어의 과거시제를 3개의 대립항으로 인식한다. 즉 단순 과거의 총체상(perfective), 반과거의 미총체상(perfective) 그리고 복합과거의 완료상(perfect)의 사행들이다. 콤리는 프랑스어의 전반적인 시상체계를 총체상과 미총체상(perfective/ nonperfective), 그리고 완료상과 미완료상(perfect/nonperfect.)으로 하여 이분법적으로 정리한다.

3.2 시제연산자와 사행의 결합 양상

사행을 규정하고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의 도구를 필요로 한다. 신타스Cintas와 데클레Desclés는 사행 구간 (intervalle), 경계(borne), 닫혀짐(fermé)과 열림(ouvert), 그리고 내부(intérieur)와 외부(extérieur)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행을 유형화한다 (Cintas&Desclés, 1988). 그는 동사의 시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제 연산자에 의한 사행과 시제의 가치를 위상학적인 방식으로 분류하여 사행을 다음의 3가지로 제시한다.

- A. 상태(état) : 개시점과 종결점이 없는 개방된 사행구간
- B. 과정(processus) : 개시점이 닫혀있고 종결점이 열려있는 사행구간
- C. 사건(événement) : 개시점과 종결점이 닫혀진 사행구간

이렇게 유형화한 사행으로 프랑스어의 시제가 지니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여기에서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의 가치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현재 (le Présent)

-현재의 우연한 상태

(49) le chat dort / Joseph est malade (고양이가 자고 있다 / 조셉이 아프다)

- 항구적인 상태

(50) L'eau bout à 100°C / La terre tourne sur elle-même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지구는 스스로 자전한다)

- 진행의 과정

(51) Joseph parle avec ses amis / Didier mange une choucroute(조셉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디디에가 슈크루트를 먹고 있다)

- 현재의 습관

(52) Zoé fume des petits cigares(조에는 얇은 시가를 피운다)

- 현재의 결과적인 상태

(53) Roger habite à Amsterdam depuis plus de deux ans(로제는 암스테르담에 2년 이상 살고 있다)

복합과거(le Passé Ccomposé)

- 사건

(54) Nicole a vu Bob ce matin(니콜이 오늘아침 밥을 만났다)

- 결과의 상태

(55) Le chat a mangé un gros poisson, il est repu(고양이가 커다란 생선을 먹어서 포식상태야)

반과거(l'Imparfait)

- 과거속에서 우연한 상태

(56) Nous étions assis dans le salon et nous regardions la télévision (우리는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 과거의 습관

(57) Quand Eric était jeune, il allait souvent à la pêche (에릭은 젊었을 적에 자주 낚시질을 하러 갔다)

- 과거의 결과적 상태

(58) L'année dernière quand je l'ai rencontré, Roger habitait à Amsterdam depuis deux ans (작년에 내가 로제를 만났을 때 그는 암스텔담에 2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

단순과거(le Passé Simple)

- 사건

(59) Ce matin-là, il sortit dans le jardin, fit quelques pas, regarda autour de lui et soupira tristement (그날 아침 그는 정원으로 나와 몇 걸음을 걷고, 주위를 둘러보고, 슬프게 한숨을 내쉬었다)

테클레의 작업은 하나의 시제연산자가 여러 가치를 표현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각 시제연산자는 일정한 유형의 사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건은 단순과거와 같은 정과거(aoriste)에 의해 표현되고 진행되는 과정은 미완료 시제연산자인 현재나 반과거로 표현된다. 그리고 진행이 아닌 과정과 그 결과상태는 완료시제인 복합과거에 의해 드러나며 항구적 상태는 현재시제의 기능으로 간주된다. 그의 연구는 사행들을 위상학적으로 유형화하여 이 유형들과 시제연산자들의 관련성을 밝히려 하였다. 동일한 유형의 사행도 서로 다른 시제연산자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의 시제연산자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사행을 의미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사행의 유형과 시제연산자는 일대일의 대응이 아니라 교차하여 결합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된 시제연산자를 이용하여 많은 사행을 표현하는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시제연산자에 서로 다른 사행이 지시되는 것은 동사의 의미자질, 발화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L'eau bout à 100°C(물은 100도에서 끓는다)와 Attention! l'eau bout maintenant(조심해! 물이 끓는다)은 상황의 차이에 근거하여 항구적 상태와 현재의 우연한 상태를 지시한다. 또한 Joseph parle avec ses amis(조셉이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와 Zoé fume des petits cigares(조에는 얇은 시가를 피운다)는 동사의 의미자질과 관련이 있다. 즉 'parler'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만을 지시하지만 'fumer'는 진행중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술할 수 있는 동사이다. 더욱이 이외에 부사나 조동사 등도 사행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4. 문장성분들과 사행의 한정

한 발화체가 지시하는 사행은 동사와 시제연산자 외의 요소들에 의해서도 한정된다. 즉 동사의 의미 그리고 목적어가 한정사에 의해 어떻게 한정

되고 있는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빌메 Wilmet는 시상을 한정하는 성분을 문법적인 것과 의미론적인 것 그리고 어휘적인 층위로 나눈다 (Wilmet, 1978: 51-68). 문법적인 한정요소로서 시제를 구성하는 모든 목록을 작성하여 거기에 시제로서의 가치와 시상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의미론적인 성분으로는 벤들러의 분류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그리고 어휘적인 성분으로는 조동사, 부사, 그리고 접두어와 접미사에 의한 동사의 파생형태에 주목한다. 이리하여 문법적인 사행의 한정 유형을 6개, 의미론적인 유형으로 4개, 그리고 조동사에 의한 어휘적 사행의 한정요소로 7개, 부사에 의한 한정요소로는 4개, 접사에 의한 한정요소로 2개를 제시한다. 각 층위별로 제시한 한정요소중 문법시상과 어휘시상의 몇 개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문법시상(목록 /시제적 가치/시상적 가치)

sut / 과거 / Global(총체)

sait /현재 / Sécant(분할)

saura / 미래 / Global(총체)

savait / 과거 / Sécant(분할)

a su / 전현재 / Sécant extensif(완료분할)

aura su / 전미래 / Global extensif (완료총체)

avait su /전과거/ Sécant extensif(완료분할)

이 목록에 해당하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60) Il sut la réponse (단순과거 : 그는 답을 알게 되었다)

(61) Il sait la réponse (현재 : 그는 답을 알고 있다)

(62) Il saura la réponse (단순미래 : 그는 답을 알게 될 것이다)

(63) Il savait la réponse (반과거 :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64) Il a su la réponse / (복합과거 : 그가 답을 알았었다→지금은 잊었다)

(65) Il aura su la réponse / (미래완료 : 그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66) Il avait su la réponse / (대과거 : 그가 답을 알고 있었었다→그때엔 잊었다)

‘savoir’와 같은 상태동사는 현재나 반과거로 쓰이는 것이 의미론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단순과거와 단순미래로 쓰이면 그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빌메의 시상으로는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

다. 이 사실은 베트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속하려는 성격의 상대사행과 총체사행 간에 모순이 일어나는데, 총체는 시작점과 종결점을 포함하는 상황을 지시하므로 ‘알게 되는’ 과정으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또한 완료시제로 쓰이면 ‘알다가 모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완료시제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행구간이 종결된 이후를 나타내게 되므로 ‘답을 잊어버린’ 상황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어휘시상 (목록 / 시상적 가치)

commencer à / Inchoatif(기동상)
 continuer à / Continuatif(계속상)
 maintenant / Orcentrique(求心上)
 alors / Lorcentrique(遠心上)
 mener, amener / Duplicatif(중첩상)
 cligner, clignoter / Multiplicatif(중복상)

빌메는 이렇게 사행을 한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발화체는 단지 하나의 사행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행이 종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이 의미할 수 있는 사행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67) Il commence à m'énerver (그가 나를 성가시게 굴기 시작한다)

문법시상 : sécant incident(동시 분할상) ← commence (현재시제)

의미시상 : imperfectif (미총체상) ← énerver (벤들러의 행위동사)

어휘시상 : inchoatif (기동상) ← 조동사 commencer à + V (기동상)

사행을 한정하는 요소로 문장 성분을 3개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22개에 이르는 항목으로 하위 분류한 빌메의 논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행은 어느 한 요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은 외국어 교육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상은 이 뿐만이 아니라 목적어의 통사 및 의미론적 성격과도 연관되어 있고 상황과도 연관된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사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목록은 수십 개에 이를 것이다. 또한 그들이 상호 결합하는 양상은 몇 백 개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언어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점을 취하여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것이다.

사행을 유형화하려 한 목적이 사행이 발화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하려 한 것이라면 선택해야 할 관점은 분명해 진다. 발화체에서 정보 외에 다른 가치를 밝혀낼 수 있는나의 문제가 사행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식일 것이다.

5. 사행의 의미효과

사행은 여러 요소에 의해 한정될 수 있음은 여기까지 살펴본 바와 같다. 벤들러나 브뤼노의 사행유형에서는 사행구간에 개시점이나 종결점이 있는지의 여부, 열립과 단립 등의 위상학적인 분류소들이 사행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행위자의 의지를 추가하여 상태사행과 행위사행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회펠만과 로레 그리고 데클레는 시제연산자에 의한 사행의 한정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프랑스어의 시제는 총체(Perfective), 미총체(Imperfective) 그리고 완료(Perfect)의 3개의 시상이 대립하여 시간 구조망을 형성한다. 콤리는 시상체계를 총체와 미총체, 그리고 미총체의 하위시상으로 습관과 지속을 예시하였는데 우리는 콤리의 이러한 분류에 주목하였다. 이런 분류가 문장이 지시하는 사행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존 연구에서 콤리의 분류 중 미총체의 하위시상인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였다. 우선 반복은 다음의 예문들에서 나타나는데 사행의 특징은 오른쪽 사행구간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 (68) Si je *sortais*, tout le monde *se mettait* aux fenêtres (내가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창가로 나왔다)
 (69) Que *faisiez-vous* au temps chaud? - Je *chantais* (더울때는 뭘 하셨어요? - 노래를 부르곤 했죠)
 (70) Voilà le banc rustique où s'*asseyait* mon père(저기 우리 아버지가 앉으시던 농가풍의 의자가 있네)

이러한 반복은 시제연산자와 상황에 의해 한정된다. 여기에서 반복은 습관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도 사행의 오른쪽이 개방되어 있는 반복을 나타낸다.

- (71) Ce malade faisait une longue promenade *tous les matins* (매일 아침 환자는 긴 산책을 하곤 했다)
 (72) Elle rougissait *toujours* quand il la flattait (그녀는 그가 아첨할때

마다 얼굴을 붉히곤 했다)

- (73) Tu mangeais autant que maintenant? (넌 예전에도 지금처럼 많이 먹었니?)

이 반복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 그런데 반복은 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직업을 보여준다.

- (74) - Quelle est votre profession? (직업이 무엇이세요?)

- Je travaille dans un journal (신문사에서 일합니다)

- (75) - Voulez-vous votre place, fumeur ou non fumeur? (흡연석과 금연석, 어느 것을 원하세요?)

- Je fume (저는 담배를 피웁니다)

발화체는 세계에 대한 진술의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 (76) - Parle-moi de l'endroit où l'on ira cet été (올 여름 어디로 갈 것인지 말해주세요)

- Tu t'y prends tôt, mon fils (너무 성급하구나, 우리 아들)

- Sinon, je vais être encore la victime. (이러지 않으면 저는 다시 희생이 돼요)

Vous choisissez toujours des endroits qui ne m'intéressent pas.
(부모님은 항상 제 마음에 안드는 장소를 고르시잖아요)

'다시 희생물이 된다'라든지, '마음에 안드는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반복시상이다. 일회적 사행은 반복의 사행에 비해 의미가 약하다. 따라서 논쟁에서 강하려면 양적으로 많은 사행을 나타내는 반복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논증 전략이다.

- (77) - Je vais courir avec toi le samedi et le dimanche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 너랑 조깅을 해야겠다)

- Moi je cours déjà tous les jours (저는 벌써 매일 뛰고 있는데요)

조깅을 하자는 제안을 상대방은 간접적으로 거절한다. 'déjà'로서 이미

운동을 시작했음을 내세우고, 'tous les jours'로서 그 행위의 빈도를 증대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도 반복의 사행이 이용된다.

지속은 사행구간의 끝이 열려 있어서 종결점에 이르지 않았으며 반복하지 않는 사행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완료와 미완료 사행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인 아래의 예를 보자. 우선 다음 (78)의 질문에 (79)의 대답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78) L'année dernière, qu'est-ce tu as fait? (작년에 너 뭐했니?)

(79) L'année dernière, j'ai déménagé (작년에 나 이사했어)

그런데 (78)의 질문에 다음 (80)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80) L'année dernière, je déménageais (작년에 나 이사하느라고)

이런 사실은 (79)와 (80)이 지향하는 논증(argument)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81)은 (80)의 논증방향을 뒷받침하는 명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81) Je n'ai pas pu travailler l'année dernière : je déménageais(작년에 난 일을 할 수 없었어, 이사하느라고)

작년이라는 '시기'를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여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79)와 그 시기의 내부에서 이사의 과정들을 지시하는 (80)은 서로 다른 논증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의 사행은 어떤 의미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음의 예에서 보기로 하자.

(82) L'hôtel se trouvait au centre de la ville. Une voiture roulait dans la rue. Une personne *passait* sur le trottoir. Il *parlait* à un garçon. Un voyageur *entrait*, il *portait* des valises lourdes et *montait* par l'ascenseur. (호텔은 도시의 중심에 있었다. 차 한 대가 길위를 달리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인도위를 지나고 있었다. 그가 보이에게 말을 걸었다. 한 여행객이 들어왔다. 그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있었다.)

뒤크로Ducrot는 프랑스어 반과거는, ‘과거 시기 혹은 그 시기의 대상이나 사건을 주제어로 하여 그 주제어에 대하여 속성을 부여’ 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Ducrot, 1979: 8). 시간축 상에서 전개되었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순과거(혹은 복합과거)로 된 발화체와는 달리 반과거로 된 발화체는 지속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을 제시한다. 따라서 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에 적합하다. 위의 예문 (73)은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을 뿐 어떤 사건의 발생을 언술하지 않는다. 지속시상은 사행에 관해서 부분적인 정보만을 언급한다. 이는 사행의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체시상이나 완료시상과는 다르다. 이런 상황을 주제-서술(thème-propos)의 관계에서 보자면 주제의 제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는 청자를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총체시상에 의한 서술이 뒤따른다.

이렇게 지속시상을 파악하려는 방법론은 시상을 문장의 수준으로만 축소시키고 자신의 이론은 시제가 주는 주관성에 입각한 것이라는 바인리히가 전개하는 전경(premier plan)과 배경(arrière-plan)이론을 극복할 수 있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한 사건의 전개양상에 관한 사행은 동사의 시간구조인데 이 사행이 시제 연산자에 의해 한정되어 발화체의 사행이 된다. 동사의 범주인 시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행은 이를 유형화하였을 때 완료시제에서 조동사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수동태 및 완료시제의 함의 등의 의미파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브뤼노의 분석과 베트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사행은 시제연산자와 결합하여 문장의 층위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테클레의 분석에서 보았다. 또한 ‘savoir’의 미묘한 의미는 빌메의 분석에 의해 파악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어행위는 객관적 정보의 전달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발화행위에는 화자의 판단과 의지와 논증방향이 담겨있다. 벤들러의 분류에서 사행동사인 *love*, *aimer*는 ‘I will always love you’, ‘Je t’aimerai toujours’에서는 행위동사의 역동성을 갖게된다. 또한 ‘Tu es encore la plus belle au monde’라는 말에는 전환이 함의되어 있다. 이런 전환은 사행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부사 ‘encore’에 의해 함의된다.

사행의 유형이 한 발화체의 시상을 한정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발화체의 의미효과까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바인리히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시상은 문장의 층위에서 언어외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언술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외부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화자는 정보를 온전히 전달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더욱이 발화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에서는 여러 사행의 대립과 조화에 의해 또 다른 의미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화체의 사행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사행의 의미와 기능을 텍스트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원유상. (1999). 반복시상연구, *프랑스학연구*, vol.17, 프랑스학회, 81-95.
- 원유상. (2004). 지속시상연구, *프랑스학연구*, 29권. 프랑스학회, 249-274..
- Cintas, P., & Desclès, J.P. (1988). Signification des temps grammaticaux, in *le Français dans le monde*, n°214. 54-59.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 Ducrot, O., (1079). L'imparfait en français, in *Linguistique Berichte*, 60, 1979, 1-23.
- Guillaume, G. (1970). *Temps et verbe*. Théorie des aspects, des modes et des temps, Paris, Champion.
- Guillaume, G. (1964).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 Nizet et Québec, P.U. Laval.
- Hoepelman, J., Rohrer, C. (1978). "<<Déjà>> et <<encore>> et les temps du passé du français", in *La notion d'aspect* (pp.167-180). Université de Metz.
- Kovalevsky, J. La notion de temps, 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Retrieved June, 15, 2003, from <http://www.asmp.fr>.
- Le Bidois, G., Le Bidois, R.(1971.) *Syntaxe du français moderne*, ed. A et J.Picard.
- Gosselin, L. & François, J. (1991). Les typologies de procès : des verbes aux prédications, in *Les typologies de procès* (pp.21-86). Klincksieck.
- Martin, R. (1971) *Temps et Aspect*, Paris, Klincksieck.
- Vendler, Z. (1967). "Verbs and times", in *Linguistics in Philosophy* (pp.97-121). Cornell University press.

- Vet, C. (1980) *Temps, aspects et adverbess de temps en français contemporain*. Essai de sémantique formelle, Genève, Droz.
- Weinrich, He. (1973) *Le temps*, Seuil.
- Wilmet, M. (1978) Aspect grammatical, aspect sémantique, aspect lexical: un problème de limites, in *La notion d'aspect*. (pp51-68).
Université de Metz.

원유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유럽지역어문학부

T: 063-850-6430

E-mail: wonys@wonkwang.ac

Received: 29 September, 2004

Revised: 27 October, 2004

Accepted: 5 December, 2004